

노조 회계공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2.19.(목) 뉴스핌, “노정 신뢰회복 국면...노조 회계공시 기준 완화 조짐도”

- (전략) 지난 정부에서 시작한 노조 회계공시를 올해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동계에서 꾸준히 연좌제 폐지 등을 요구했고 정부가 노동계와 신뢰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회계공시 기준 완화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략) 노동부는 ‘연좌제’ 폐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법률뿐 아니라 재정경제부 소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 해당 규정을 폐지한다면 노조에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이기에 내부 논의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후략)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람

담당 부서	노동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부용 (044-202-7740)
	노동정책총괄과	담 당	사무관	최성호 (044-202-7694)